

‘철벽’ KIA 조상우, 불펜 핵심 전력으로 부활

“올해는 제구와 타자 전력 분석에 더 집중했습니다.”

KIA 타이거즈 불펜의 핵심 조상우가 돌아왔다. 올 시즌 구속보다 제구를, 힘보다 여유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조상우는 10일 경기 전 기준 30경기에서 26.2이닝을 소화하며 4승 1패 8홀드 평균자책점 1.69를 기록하며 맹활약 중이다.

특히 셋업맨, 필승조, 마무리 역할을 모두 소화하며 팀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가장 최근 등판에서도 존재감을 뽐냈다. 조상우는 지난 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삼성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8회초 무사 1·2루 위기 상황에 등판해 2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2사구 무실점으로 팀의 7-6 승리를 지켜냈다.

당시 KIA는 마무리 성영탁과 정해영이 연투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자연스럽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인 조상우에게 시선이 쏠렸다. 어려운 상황에 부담감을 느낄 법도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조상우는 “내가 쉴 때도 있고 다른 친구들이 쉴 때도 있다. 항상 있는 일이라 별생각 없이 준비했다”며 “마무리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그냥 8회나 9회 타선에 따라서 나갈 거라고 말씀하셨다. 8회초부터 상황에 맞춰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팀이 6-5로 앞서고 있는 상황. 8회초 무사 1·2루에서 마운드에 오른 조상우는 1사 만루 상황에서 전병우에게 밀어내기 불넷을 허용하며 동점을 내줬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후속 타자를 처리하며 추가 실점을 막았고, 9회까지



30경기 26.2이닝 4승 1패 8홀드 ERA 1.69 활약
삼성전 2이닝 역투로 승리 견인...“제구에 집중”

책임지며 승리 투수가 됐다. 조상우는 가장 아쉬운 장면으로 전병우와의 승부를 꼽았다.

그는 “제임스 네일이 워낙 승리를 많이 못 챙기고 있어서 꼭 점수를 안 주고 싶었다”며 “구석을 보고 던졌는데 조금씩 빠졌다. 네일의 승리를 지켜주지 못한 게 아쉽다”고 전했다.

이날 광주 ABS 스트라

이크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조상우는 “확실히 우타자 몸쪽으로 조금 치우쳐진 느낌이 있었다”며 “더 안쪽으로 던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랬다가 큰 거 맞으면 경기 아예 끝나는 상황이라 더 구석을 보고 던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9회초 상대 중심 타선을 상대로 더욱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다. 팀은 8회말 김도영의 홈런으로 1점을 얻어냈고, 조상우는 김성윤을 범타 처리한 뒤 구자욱과

디아즈를 차례로 막아내며 승부를 끝냈다.

조상우는 “1점 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이 나왔다”며 “가운데 안 들어가게 하려고 볼도 확실하게 불로 던지고, 스트라이크는 구석으로 던지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그의 최고 구속은 148km까지 찍혔다. 전성기 시절을 연상케 하는 구위였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구속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조상우는 “구속은 올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많이 나오는 날도 있고 적게 나오는 날도 있다”며 “요즘은 경기할 때 구속을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올 시즌 셋업맨과 필승조 역할을 주로 소화하고 있다. 이날은 마무리 역할로 나섰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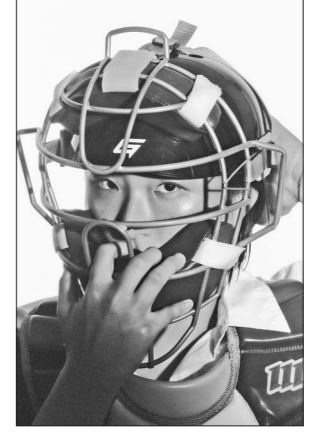
조상우는 “항상 똑같다. 마무리든 중간이든 결국 제일 중요한 순간에 나가고 있다. 항상 같은 1이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시즌 72경기 평균자책점 3.90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올 시즌을 앞두고 KIA와 2년 총액 15억원에 FA 잔류 계약을 맺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수도 있는 계약. 조상우는 올 시즌 성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투구 철학이 달라졌다.

조상우는 “작년에는 밸런스나 더 강한 공을 던지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다 보니 마운드에서 혼자 싸우는 느낌이 들었다”며 “올해는 제구에 더 집중하고 타자 전력 분석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속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마운드 위 여유를 찾은 조상우. KIA가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는데 있어 그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여자야구 국가대표 포수 김현아
KIA, 14일 승리 기원 시구 초청
WPBL 1라운드 4순위 보스턴 지명

KIA 타이거즈가 오는 1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와의 홈경기에 대한민국의 여자야구 국가대표 포수 김현아를 승리 기원 시구자로 초청한다.

김현아는 대한민국 여자야구 대표팀의 주전 포수이자 중심 타자로 활약하며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다. 특히 지난해 11월 진행된 미국여자프로야구리그(WPBL·Women's Pro Baseball League)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보스턴 구단의 지명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이에 김현아는 1954년 이후 72년 만에 재출범하는 WPBL 무대에서 프로 선수로 활약하게 됐다. 한국 여자야구 선수의 해외 프로리그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현아는 “KBO리그 최다 우승 구단이자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KIA 타이거즈에서 시구를 하게 돼 정말 영광이다. 챔피언스필드를 가득 매운 타이거즈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열기를 직접 느낄 생각에 설렌다”며 “KIA의 승리를 기원하며 누구보다 힘차고 씩씩하게 공을 던지겠다”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공격수 아이데일 영입
호주 국대 출신...공격력 주목

프로축구 광주 FC가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를 품으며 후반기 반등에 나선다.

광주는 10일 호주 출신 스트라이커인 아이데일(26)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K리그2 서울 이랜드 FC에서 검증된 득점력을 보여준 아이데일은 광주의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이데일은 호주 A리그 시드니 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유럽 무대에 진출하며 성장한 공격수다.

네덜란드 명문 구단인 SC 헤이렌베인으로 이적한 후 독일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고, SV 베렌 비스바덴에서는 72경기 15골 5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 같은 활약을 바탕으로 호주 국가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리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덴마크 리그를 거친 그는 2025시즌 서울 이랜드 FC에 입단하며 한국 무대에 도전했다.

K리그 적응도 빨랐다. 아이데일은 첫 시즌 27경기에 출전해 10골 2도움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뛰어난 제공력과 활동량, 연계 플레이 능력을 앞세워 서울 이랜드 공격을 이끌었다.

아이데일은 188cm·86kg의 탄탄한 체격을 갖춘 공격수다. 적극적인 공간 침투와 동료 활용 능력, 전방 압박 능력까지 갖춘 현대적인 스트라이커로 평가받는다.

광주 구단은 아이데일의 오프더볼 움직임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구단 관계자는 “아이데일은 끊임 없이 공간을 찾아 움직이며 동료들이 만들어낸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면서 “광주가 추구하는 유기적인 공간 활용 축구에 적합한 선수다. 공격적인 새로운 옵션과 경쟁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데일 역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광주의 일원이 돼 매우 기쁘다. 구단의 시스템과 환경에도 만족하고 있다.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팬들을 만나고 싶다”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즌이 끝났을 때 모두가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팀에 도움이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정후, 17연속 경기 안타...MLB 한국 선수 신기록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추신수,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을 넘어 한국인 바리케 최장 연속 경기 안타 신기록을 세웠다.

이정후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 경기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했다.

그는 지난 달 15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부터 17경기 연속 안타를 터뜨리면서 2013년 추신수와 2023년 김하성이 기록한 한국인 타자 MLB 최장 연속 경기 안타 기록(16경기)을 넘어섰다.

전날 4안타를 쳤던 이정후는 두 경기 연속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기록하며 절정의 타격감을 과시했다. 올 시즌 멀티히트를 작성한 건 22번째다.

또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0.333에서 0.335(230타수 77안타)로 끌어올리면서 MLB 타율 순위 2위를 유지했다.

1위 오토 로페즈(마이애미 말린스·0.341)와는 6리 차이다.

이정후는 0-2로 뒤진 2회말 첫 타석에서 범타로 물러났다. 선두타자로 나선 이정후는 워싱턴의 좌

MLB 전체 2위... 시즌 타율 '0.335'
230타수 77안타...1위와 '6리' 차이
올 시즌 22번째 멀티히트 기록 작성

완 선발 앤드루 엘버레즈를 상대로 2루 땅볼로 아웃됐다.

첫 안타는 3회말 두 번째 타석 때 나왔다. 2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엘버레즈의 높은 코스의 싱킹 패스트볼이 스트라이크로 판정되자 캘린지를 신경해 볼을 끌어냈다.

이후 3루 1스트라이크의 유리한 볼카운트를 만들었고, 엘버레즈의 5구째 바깥쪽 직구를 끌어당겨 우전 안타를 터뜨렸다.

후속 타선의 침묵으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정후는 0-3으로 뒤진 5회말 세 번째 타석에서 두 번째 안타를 뽑아냈다.

1사 1, 3루 기회에서 바뀐 우완 투수 브래드 로드를 상대로 우익선상 적시 2루타를 폭발했다.

볼카운트에서 몸쪽 낮은 어려운 코스의 직구를 절묘하게 쳐 안타를 만들었다.

그 사이 1, 3루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았다. 2-5로

뒤진 7회말 세 번째 타석 1사에서는 폴카운트 승부 끝에 투수 앞 땅볼로 아웃됐다.

2-6으로 벌어진 9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1루 땅볼을 쳤다. 1사에서 우측 강한 타구를 날렸으나 상대 팀 1루수에게 막히며 물러났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활약에도 3-6으로 패했다.

한편 같은 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펙트 파크에서 열린 신시네티 레즈와 홈 경기에서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194(36타수 7안타)를 유지했다.

그는 8회까지 3차례 타석에서 모두 삼진으로 물러나며 부진했으나 2-2로 맞선 9회말 1사에서 우전 안타를 생산했다.

샌디에이고는 이후 후속 타선이 폭발하며 1사 만루 기회를 잡았지만, 매니 마차도와 개빈 시즈가 모두 삼진으로 아웃되면서 경기를 끝내지 못했다.

3루에서 기다리던 송성문도 끝내기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샌디에이고는 연장 11회초 2실점 해 3-5로 밀렸고, 송성문은 연장 11회말 무사 2루에서 1루 뜬 공으로 아웃됐다. 득점에 실패한 샌디에이고는 3-5로 패했다.

연합뉴스



이정후가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 경기 3회에 안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